

오무로 88 개소 영지

닌나지 절 내에는 원래는 절의 일부가 아니었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무로 88 개소 영지(靈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지는 총 길이 3km, 소요 시간 2 시간의 도보길로서 시코쿠 지방에 위치하는 88 개 사찰(시코쿠 88 개소 영지)을 둘러보는 유명한 순례길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닌나지 절에 있는 것은 시코쿠 88 개 영지를 축소한 것으로서 닌나지 절 뒤에 있는 해발 236m의 조주산을 걸으면서 ‘후다쇼’라고 하는 88 개의 작은 사당들을 돌아보고, 각 후다쇼에서는 작은 부적(오후다)을 모읍니다. 이들을 다 모으고 순례길을 답파하는 것을 ‘게치간’이라고 하며, 시코쿠 88 개 영지(거리로는 400 배)를 답파한 것과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지는 1827년에 시코쿠의 영지가 매우 혼잡함을 안 닌나지 절의 29대 주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시코쿠의 영지에서 가지고 돌아온 모래를 조주산의 순례길에 뿌리고, 닌나지 절의 본존인 고보대사를 모시는 88 개의 후다쇼를 지었습니다. 순례길에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는 시코쿠 88 개소 순례를 끝마친 순례자가 들러 몸을 정결히 한 목욕탕의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닌나지 절에서는 목욕탕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